

이왕이면 잘하는 것·전공관련이 유리

대학입시 과외활동 전략 <1면서 계속>

지원서용 활동은 감동 못줘 사회에 어떤 기여했나 보여줘야

■진정성이 중요하며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준다

입시를 위해 보여주기 위한 과외활동을 한다면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본인의 마음이 끌리는 봉사를 할 때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서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양로원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할 때도 봉사 크레딧을 얻기보다는 노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기쁘게 해주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효'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집안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대하는 학생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쓸 때에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즉 과외활동을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달렸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활동이라도 포장이 중요하다

과외활동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같은 활동을 했어도 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했는지 혹은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도 어떤 편집을 하고 제목을 다느냐에 따라 같은 기사이지만 시선을 끌기도 하고 묻히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의 활동을 잘 포장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의 바이얼린 주자로 활동했다면 이것을 학교에서의 과외활동으로 평범하게 기술하지 않고 양로원에서 음악봉사를 통해 재능기부를 했다

는 식으로 스토리를 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뛰니 뛰니 해도 학업이 우선

과외활동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학업을 등한시해서는 곤란하다. 명문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학업성적은 엉망인데 과외활동이 출중한 학생을 원치 않는다.

일단 학업성적을 올려놓고 과외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명문대에 가고 싶다면 가장 기본은 성적(GPA)이다. 여기에 SAT 또는 ACT 등 학력평가 시험 점수도 중요하다. 학업이 뒤쳐진다면 당연히 과외활동보다는 학업에 치중하는 것이 옳다.



과외활동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요리실습 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식자재를 기다리고 있다. (AP)

“뭘 했나 보다 무엇을 얻었나가 중요”

■과외활동 전문가 조언

대학입학 뿐만이 아니고 보딩스쿨, 대학원, 직장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학교 성적 외의 과외활동을 들 수 있다. 대학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과외활동 섹션이다.

올해 나온 공통지원서를 보면 과외활동과 work 경험이 합쳐져 기록하는 란이 더욱 길어졌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과연 과외활동 섹션은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할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고교시절 자신이 했던 과외

활동들을 학년별로 나열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과외활동을 기록하는 섹션이야말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과외활동을 기록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More mature ▲Better at time management ▲A leader more interested in the value of education 등이다. 대입 지원서 작성 때 대학 입학사정관들에게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떻게 지금의 지원자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인 'Extracur-

ricular Activities & Work Experience'를 보면 먼저 몇 학년 때부터 몇 년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년에 몇 주 동안, 여름방학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포지션과 아니 상은 받았는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대학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물론 학교 성적과 각종 테스트들의 점수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 과외활동 및 에세이, 추천서 등 나머지 다른 것들을 본다.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의 과외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들이 과외활동의 이름만이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본다. 그래서 과외활동은 두서없이 나열만 해서는 안 되고, 두세 문장으로 된 좀 더 간결하면서도 구체

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지원자가 터득한 기술이나 재능 혹은 진행해 온 프로젝트 등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지원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지원자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상을 받았다면 그 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나 질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56-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권중건

-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서울치대 졸업
- U.S.C.치대 졸업
- U.S.C.치대 교정과 대학원 졸업
- U.C.L.A.T.M.J. Mini Residency 수료
- Member of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INVISIBLE ORTHODONTICS

권 교정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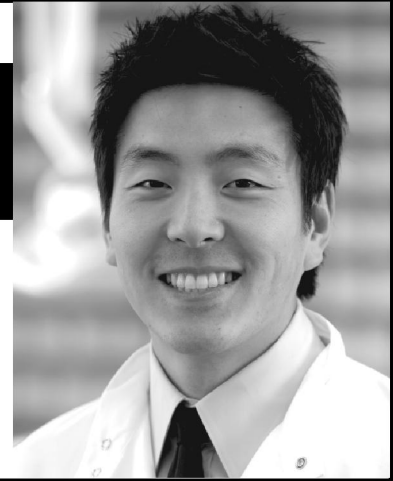
BOARD CERTIFIED ORTHODONTISTS
www.kwonorthodontics.com
f Kwon Orthodontics

대표 1-888-755-1888

진료시간 월~토(9AM~6PM) ※진료는 월부로 가능합니다.

Los Angeles (화, 목, 토)
3700 Wilshire Bl. #400
L.A., CA 90010 (윌셔와 엑스포드)
213.739.8678

La Canada (월, 수, 금)
1528 Foothill Bl. La Canada, CA 91011
(Foothill 과 Alta Canyon)
818.248.0124



Donald Kwon

-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 Dual Degree in Economics and Computer Science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 DDS from the School of Dentistry of USC
- Certificate in Orthodontics from the School of Dentistry of USC
- MS in Craniofacial Biology from USC
- Member,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수학전문 · 21년 · 수천명 가르친 경험으로

수많은 성공사례

학생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해결) 가르쳐 줍니다

Test 준비

Homework

모르는 부분만 정확히 즉시 해결

근본적으로 수학 잘하도록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

- 1:1 개인지도
- 1:2 개인지도
- 특별 Group 지도

- 모르는 것만 즉시 배워서 알고 싶을때, 학생이 준비해 오면 어떤 문제라도 즉시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 급한경우, 필요한 경우 1번~3번만 개별적으로 배울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 (1) 학교진도 공부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2) Test 준비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3) 연습, 복습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 (4)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을 위한 Class
학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 (5) 근본적으로 수학 잘 하도록 하는 Class
논리적인 사고력, 응용력
- (6) 중학교 총정리 Class
중학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 (7) 고등학교 총정리 Class
고등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 (8) SAT I, II 수학 Class
핵심, 요점정리, 꼭 알아야할 공식과 개념 200개

확실한 효과

- 평범했던 학생이 수학경시대회 수상자로
- F, D, C 였던 학생이 B, A로
- 평범했던 학생이 하바드, 스텐포드 합격자로
- 수학을 싫어했던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 실수를 너무 자주하고 배운것을 잘 잊어버리니까?
- 공부습관이 나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 응용문제를 못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과정 능력이 없습니까?

TEACHING 법칙

- 자체 개발 교재 사용 또는 학교 교과서 사용
- 교과서 내용위주, 칠판강의
- 선 응용 후 개념의 법칙, 3단계 System
- 1시간 30분씩 1주일에 2번 (또는 1번) 수업

■ LA, OC 뿐 아니라 CA 전지역 그리고 동부지역, 중부지역 등 타주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수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필그림 수학 전문학원
LA / OC (213)384-2400

● LA : (213) 384-2400
● Fullerton : (714) 738-5571